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4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044-203-4280), 정두식 사무관(044-203-4284)
박현우 주무관(044-203-4288)

- 산업부, 중소기업의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기술지원 -

□ 정부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특정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들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올해부터 새로 시행**할 계획임.

*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 : 프레온가스,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총 9종의 물질로서 냉매(냉장고, 에어컨 등), 단열재(건축), 세정제(반도체) 소화약제(소방) 등으로 사용되어 왔음. 몬트리올 의정서(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등은 2010년에 이미 신규 생산이 금지되었으며,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은 점차 축소돼 2030년에 생산이 금지될 예정

○ 아울러 폐기되는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겨 있는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추기로 함.

* 2013년 12월 13일 자 석간 보도자료 '오존층파괴물질 내년도 5.16% 줄인다.' 참조.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582&bbs_cd_n=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여 매년 3억 원씩(총 15개 중소기업, 기업당 2천만 원 내외) 앞으로 7년간 총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금속 등 국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대기업과는 달리 **발포 및 세정 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도 컨설팅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각 기업의 공정 및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 선택 및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할 계획임.

*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5월) →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6월) → 기업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6월~)

○ 또한 산업부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마치면 대상기업이 희망할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임.

*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비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현재까지 누적 집계 총 339개 기업, 757억 원 융자 지원)

□ 아울러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하여 사용 중인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 5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하여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을 통하여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계속 양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정물질 관리센터도 구축할 계획임.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2030년까지는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술도 지도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원대상 기업들에 자체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영세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마친 기업이 설비를 대체할 경우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 라고 밝힘.

참고 1 우리나라의 특정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 현황

1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규제 현황

○ **(1차 규제)**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 ’10년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 금지

- 1차규제 특정물질*인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은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신규 생산 및 수입을 ’10년부터 전면 금지

  * (1차규제 특정물질) CFCs(프레온가스), Halons, 기타 CFCs, 사염화탄소(CTC), 메틸클로로포름(1,1,1-TCE, ’15년 전폐)

○ **(2차 규제)** HCFCs, 13년부터 규제가 시작되어 ’30년에 전폐

- 2차규제 특정물질인 HCFCs는 ’13년부터 ’09～’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30년에 전폐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	→ 대체	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
· HCFC(염화불화탄소) 등		·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등
· 한국 ’10년까지 전폐 완료		· 한국 ’13～’30년까지 전폐 예정
· 냉매,발포,세정 등에 사용		· 냉매,발포,세정 등에 사용

2 2차규제 특정물질(HCFC류)에 대한 국내 감축계획 이행 현황

○ ’13년부터 HCFC류의 국내 생산·소비 감축계획에 따라 ’30년 전폐를 목표로 연도별 단계적 감축을 이행

- 우리나라의 기준수량(26천톤) 대비 ’13년 동결, ’15년 10%, ’20년 35%, ’25년 67.5%, ’30년 97.5%로 단계적으로 감축

○ 기준한도 이행을 위해 수입기업별로 수입허가제(’09～’10년 평균소비량 기준으로 배분)를 운영

○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수량 內에서 물질간 종류변경 허용

3 특정물질 감축기업 지원 현황

① 대체물질활용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원현황 : 총 54개 과제, 약 270억원 지원

○ 지원성과

- 대체물질(HCFC, HFC, HFE 등) 제조기술개발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체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 냉매, 소화, 발포, 세정 분야에서 HFC, Hydrocarbon 및 HFC계(R-404a, R-410a) 뿐만 아니라 천연냉매(에탄, 프로판) 이용 기술, 수발포 기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발포기술, 싸이클로 펜탄을 이용한 발포 기술 개발 등

②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

○ 사업목적 : 특정물질을 이용하는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설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지원

○ 지원현황 : 총 339개 업체, 약 757억원 지원

○ 지원성과

- CFCs, CTC, 1,1,1-TCE 등 특정물질 사용량 약 8,464MT 감축

참고 2 오존층파괴물질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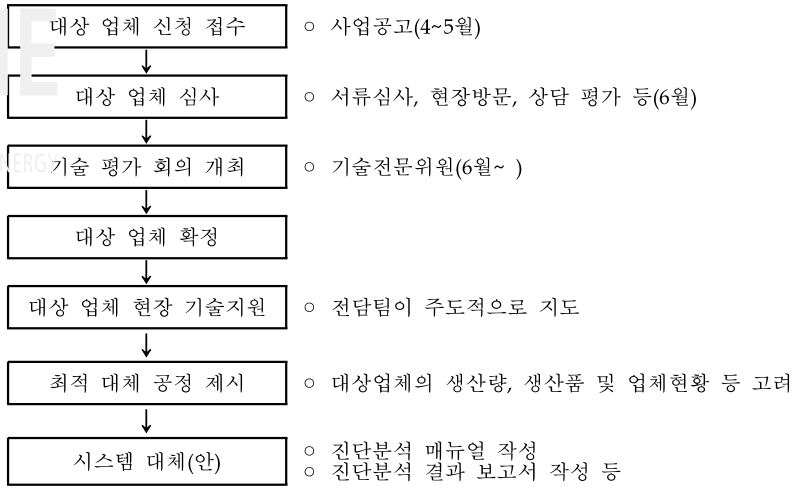
○ (사업목적) 기술·정보력이 부족하여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대체물질 적용 기술의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 대체전환 및 조기 대체 유도

○ (사업기간) '14.4월~'20.3월(1년단위, 7년간)

○ (사업규모) 총 21억원(年 15개 업체 총 105개 업체 기술지원 예상)

○ (사업주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지원절차



□ 기대효과

○ 특정물질 관련 산업의 대체전환에 따른 공통애로사항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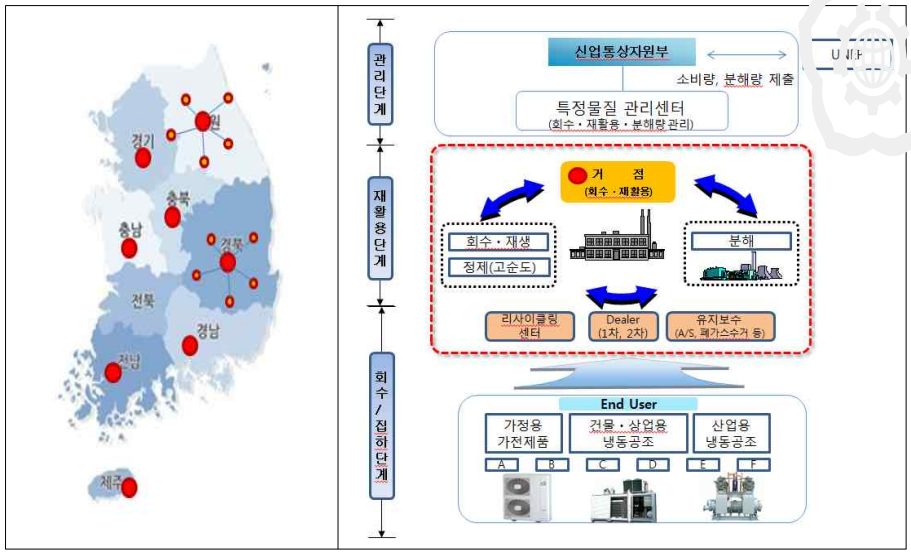
○ 기술적 한계로 시설대체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조기 대체 유도

참고 3 |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 관리체계 방안**

□ 특정물질 회수·재활용 및 분해 등 관리 방안



< 특정물질 관리체계도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